

MT  머니투데이

장하성 "중소기업 제품들고 中지방정부 계속 찾을 것"

기사입력 2020-12-30 15:02

[머니투데이 베이징(중국)=김명룡 특파원]



장하성 주중 한국대사/사진=베이징 특파원단

"올해 중국 지방정부와 협력을 통해 우리 중소기업의 상품을 소개했는데 해당 기업에게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내년에도 중소기업 제품을 중국에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활동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장하성 주중 한국대사관 대사는 30일 베이징 특파원단과 가진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엔 중국 지방정부가 주최하는 각종 박람회나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사는 올해 주중 대사관이 한국 기업의 온라인 상품전을 10번 개최했는데 중소기업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온라인 상품전에 참가한 중소기업 중에 중국 내 판매 실적이 없던 기업들도 많았는데 이들 기업이 새로운 기회를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장 대사는 "한국 기업을 유치하려는 지방 정부의 니즈가 상당히 적극적이고 구체적"이라며 "지방정부와의 소통을 통해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대사는 중국내 코로나19(COVID-19) 상황이 안정된 지난 9월 이후 적극적으로 지방행사에 참석했다. 하지만 중국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지방정부 행사 참여가 불확실해진 상태다. 그는 "지방정부가 한국과의 협력에 관심이 높고 한국 대사가 지방정부를 열심히 다니는 등 한국 정부의 지방 정부와의 관계 개선 노력을 높이 사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내년에 상황이 개선된다는 전제하에 지방정부와 적극적으로 교류하려고 한다"고 했다.

한중간 관계개선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할 계획이다. 장 대사는 "내년에 코로나19 상황이 좋아지고 안정된다면 고위급 방한 문제라든지, 한중 문화교류의 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것을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 대사는 "문화 행사를 통한 외교도 효과적이라고 본다"며 "문화 교류도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원활하다는 평가다. 한중간 항공운항편을 보면 1주일에 34편으로 일본 23편, 미국 18편 보다 월등히 많다.

장 대사는 "일부 전세기 편이 불허된 경우는 있지만 패스트트랙(신속 통로)은 여전히 잘 작동하고 있다"며 "어려운 상황에서 고위급 교류도 이어지는 등 양국간의 긴밀한 소통이 많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베이징(중국)=김명룡 특파원 dragong@mt.co.kr

- ▶부동산 투자는 [부릿지]
- ▶조 변호사의 가정상담소
- ▶줄리아 투자노트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08&aid=0004521629>
